

2026년 을지연습,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“실전 같은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”

- 한성숙 국무총리,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-

-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, 시·도지사,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주재하였다.
-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.
- ※ 을지연습 :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
- 올해로 58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, 읍·면·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·단체, 중점 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,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.
-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,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 한다.
- 먼저, 전력·에너지·공항·항만·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한 '1기관 1훈련'과 국가정보원 주관의 정부·군·관계기관 합동 ‘실시간 사이버 방어훈련’을 통해 최신 기술 기반의 복합 안보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.
- 또한,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 을지 관계장관 회의를 운영하고, 각 기관장이 실제훈련을 직접 주관하도록 하여 전시 과제토의와 상황조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.

- 이외에도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, 전시 창설기구 편성, 정부·군 통합 상황대응 연습, 전시 전환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국무회의 등을 실시한다.
 - 8월 20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주민 대피, 긴급차량 길 터주기, 차량통제 등 실제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.
-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"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정부와 군, 지방자치단체, 관계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위기관리훈련"이라며, "모든 기관은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연습에 임하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역량을 한층 높여 달라"고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“국민들께서도 훈련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직접 실천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김완수	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윤성모	(044-200-2344)
담당 부서 <공동>	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	책임자	과 장	홍경남	(044-205-43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일	(044-205-4352)